

네가 공룡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욥기 20)

성경말씀: 욥40:1-24, 42:1-6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엘리후 등장 32-37장까지 6장, 하나님의 성품 욥이 설득되지 않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심, 묘사가 아니라 드러내 보여 주심, 77개 질문

1.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38:1-38), 창조 때의 파워와 지혜, 6일 창조,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 비, 우박
2.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감독/관리할 수 있느냐?(38:39-39:30), 섭리, 욥의 1차 반응(40:1-5)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욥의 반응,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입을 막겠습니다.”(40:4)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5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심(40-41장)
3.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40:6-41:34), 공룡과 마귀,
4. 욥의 2차 반응(42:1-6)

1. 베헤못(40:6-24)

40-41장, 창조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해 네가 대답할 수 없으니 딱 2개만 묻겠다.

남자답게 대답하라(7). 내게 도전했으니 한번 용기 있게 대답해 봐라.

질문의 핵심: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라 판단의 공의 및 정의(40:8).

욥의 주장: 1.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게 자기를 다루었다(27:1-6).

2. 악한 자들을 빠르게 심판하지 않으셨다(24:1-7).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잘된다.

하나님의 제안(9-14), 1. 네가 할 수 있거든 거룩한 분노로 악한 자들을 한 번 심판해 봐라(9-13).

하나님의 팔(무력), 음성 파워(9), 하나님의 속성(10절). 교만한 모든 자, 사악한 자(11-13)

2.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네가 너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리라(14).

그런데 일단 그 일을 하기 전에 베헤못이라는 공룡을 한번 보라(15-24).

베헤못, 하마(코끼리, 악어 등)가 아니다(15). 브론토사우루스

특징(15-18). 사람과 공룡을 같이 만드셨다(15). 17 꼬리는 백향목 같음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이다(19).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갈 수 있다(19).

모든 짐승이 공룡을 위해 먹이를 낸다(20). 늪 속에 누워 있다(21-22).

요르단 물을 다 마시려 한다(23).

엄청난 괴력 소유(24), 네가 이런 공룡을 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2. 리워야단(41:1-34)

리워야단, 바다의 뱀, 악어(고래)가 아니다(사27:1). 용, 뱀

성경의 용은 중국의 용과 다르다. 계시록 12장의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공룡이다.

원래 영어에서 용은 공룡과 같은 큰 괴물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공룡을 지칭하는 ‘다이너소어’(Dinosaur)

라는 단어는 1841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오며 그 전에는 영어에서 그런 괴물을 통칭하여 ‘용’으로

불렀다(옥스퍼드영어사전, 앵글로색슨연대기 등 참조). 그래서 영국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용은 대개

모습이 ‘공룡’ 혹은 ‘공룡’의 새끼처럼 생겼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용이라고 지칭한다(계12:9).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네가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1-11), 그것을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느냐?(5)

무서운 존재이다(9-10). 그런데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11).

리워야단의 특징(12-17).

심지어 입에서 목구멍에서 불을 뿜는다(19-21). 불을 뿜는 용

엄청난 가죽, 괴력(23-24),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25-28).

땅 위에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다(33). 두려움 o벗느 존재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34).

단순히 공룡으로만 볼 수 없다. 교만한 자녀들의 왕 마귀(악어, 고래 No!), 마귀의 특징: 교만

지금까지 너를 괴롭혀 온 마귀를 네가 정복할 수 있느냐?(계12:9).

3. 욥의 두 번째 응답(42:1-6)

회개함(2-6), 욥이 역시 회개의 책이다.

잘못 알고 무지한 채로 지내면서 다 안다고 했으니 회개해야 함
회개하는 이유(5), 주님을 보니 더 할 말이 없다. 코끼리 묘사 필요 없다. 보면 끝
회개의 내용(3), 주님의 말씀 그대로(38:2)

“나는 77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2절), 회개란 무엇인가?(6), 자기를 몹시 싫어하는 것
이렇게 회개하자 그는 죄인에서 종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책망(7),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8), 이들의 실행(9)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배를 주심(10)

그의 친지들과 친척들이 오해를 푸고 회개하고 선물을 줌(11)
그 결과 그는 마지막이 처음보다 두 배나 더 좋았다.

42:12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13: 아들 일곱, 딸 셋

1장 2절 아들 일곱과 딸 셋

3절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가
짐승은 두 배, 사람은 그대로, 왜 두 배가 아닌가?

그의 아들딸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람(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아들 일곱, 딸 셋만 주어야 2배이다.

누가 낳았을까? 다른 아내를 주었을까? 성경에 답이 없음
그 이후에 140년을 평안하게 더 삶(16), 두 배를 적용하다면 아마도 70세에서 210세 정도까지
늘도록 장수하고 죽음

결론

42장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걱정과 시험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며 2배의 축복을 받는가?

수명도 늘어나고 행복하게 손자 손녀들 보며 삶을 마감하는가? 아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형,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압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음, 히11장을 보라. 믿음의 위인들, 아벨부터 구약의
여러 사람들, 욥처럼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두 믿음의 사람들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항상 옳으시다. 여기서든 아니면 하늘에서든(롬8:28)

욥의 가장 큰 축복: 짐승 2배, 아이들, 부유한 사람 yes..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것, 무한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겸손하게 된 것
약5:11

히12:11

욥23:10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고후6:3-10)